

인문대

제33호 소식

College of Humanities Newsletter

2023년
봄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주 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발행일 2023년 3월 전 화 051-510-1501
발행인 이준규(학장) 편집인 이창희(부학장)
디자인/제작 예소 전 화 051-582-1226

Contents 02 | 미리내 단상 03 | 교수동정 04 | 인문대 소식 05 | 동문소식 06 | 학과·연구소 소식 11 | 신간소개



인문대 교수 해외 연수회

인문대학은 인문학 연구에 필요한 학술정보 교류와 연구자료 수집을 위하여 해외 연수회를 실시하였다. 지역과 상생하는 인문학을 선도하고 있는 일본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자료와 성공사례 등을 접하면서 인문대학이 추진 중인 동아시아지역학 연구와 산학협력 교육기반 조성사업의 확장고도화를 위

한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번 해외 연수는 2023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모두 33명의 교직원(교수 30명, 행정실 3명)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간 침체되었던 인문대 교수들 간의 인적 교류와 학문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인문관(부산대학교 구 본관, 국가등록문화재 제 641호)
한국 근현대 건축의 거장인 김종업이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설계한 최초의 작품





‘부지런함[勤]’, 그 새삼스러움에 대하여

사학과 조교수 윤석호

어느 때 보다 바쁜 이 시대에, 누구보다 열심히 효원의 여러분들이시리라. 그래서 글을 써 내려가기가 조심스럽다. 200년도 넘게 지난, 그것도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스승께서는 좋지 않은 일로 인해 신유년(1801년) 강진에 귀양을 오셨으니, ... 이듬해 가을, 미욱하고 천한 저는 두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주막집 앞의 길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승께서는 사람을 시켜 아이들을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 저는 평소 낯을 많이 가렸던 터라 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을 되풀이해 부르신 뒤에야 겨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께서는) 배우러 다니는 서당이 먼지 가까운지를 물으시고는, “이곳에서 내 심부름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일어나 대답하기를, “부모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따르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스승께서는) “그것이 좋겠다. 내일 다시 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지는 낮은 사람의 별안간 제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이다. 요즘의 세태로 가능하지 않더라도 분명 걱정스럽고 못 미덥지 않은가? 그런데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했다. 심지어는 ‘떨어지는 바늘이 바닥에 어지러이 펼쳐진 겨자씨 하나를 맞출 정도의 인연’이니, 스승으로 모시며 평생 게을리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사제의 인연 하나가 이렇게 피어났다. 하지만 금세 위기가 찾아왔다. 스승과 함께했던 며칠 만에, 그 아이는 도달하기 어려운, 아니 감히 마음을 먹기조차 버거운 학문의 규모에 압도된 것이다. 이에 자신은 ‘둔하고[鈍], 막혔으며[滯], 어근버근하다[蹇]’고 고백하며, 파문(破門)당하기를 각오한 듯 ‘이와 같은 사람도 공부를 할 수 있겠냐’고 스승에게 물었다.

당장에는 아이의 자질이 크게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무턱대고 절학(絶學)을 만류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스승이란 자는 ‘공부는 꼭 너와 같은 사람이 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단점임이 분명하나 종국에는 크나큰 장점이 된다며, 흔들리는 제자를 다독였다. 둔탁한 도구로 어렵사리 뚫은 구멍에는 막힐 일이 없듯이, 장마철 막혀 있던 붓불이 한번 터지면 세차게 흘러가듯이, 울퉁불퉁하던 것도 같고 닦으면 반짝반짝해지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어떻게 하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까일 테다. 이에 스승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건네었다.

부지런하고[勤], 부지런하며[勤], 또 부지런하거라[勤].
어찌해야 부지런할 수 있겠니? 마음을 확고하게 다잡으면[確心] 된다. 그리할 수 있겠느냐?

부지런함... 모르는 사람 없고 안해본 사람 없다는, 그래서 심지어 진부하게 생각되기도 하는 말이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의 나도 그러했다. 그런데 이후로의 15년 남짓 동안, 바로 이 ‘부지런함’은 불현듯 뇌리에 떠오르기를 반복했다. ‘과연 나는 부지런한가’라며 집요하게 질문해대면서...

특히 근래에는 ‘공부하는 자의 태도’라는 의미를 새삼스레 던져주었다. 곱씹어보면 아이가 고백했던 단점은 학문과의 대면 속에서 절감된 것이다. 또한 ‘부지런함’이라는 스승의 독려 역시 학문을 대하는 근원적인 태도에

다름 아니다. 학문에 있어 학문 이외의 것이 주된 목적이지 않고, 자신이 외의 것이 주된 비교의 대상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자신과 공부만 만나는 순전한 지점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과연 나는 부지런한가?’ 효원 사학과에서의 첫 학기를 마무리하며, 대학원 수업의 수강생들과 강진을 답사했다. 남도의 맛난 음식과 마침 펼쳐진 설경(雪景)에 모두 즐거워했지만, 내 보기에 이들의 눈빛은 상기한 사제의 인연을 말해주었을 때 가장 반짝였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나에게도 적지 않은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다. ‘효원의 지성’이 지금껏 학문과 만나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만나갈 지점을 이들의 눈빛 속에서 새삼스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쪼록 나와 우리의 부지런함[勤]을 바랄 뿐이다. 물론 건강과 함께.

[참고] 아이는 이후 절차탁마하여 당대의 문장가로 성장했다. 그 저명한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제주도에서 해배되어 돌아오는 도중 일부러 강진에 들러 만나고자 할 정도의 인물이었으니, 바로 치원(池園) 황상(黃裳, 1788~1870)이다. 그리고 그 스승이란 자는, 1808년부터 사친 속 초당을 10여년 간 지켰던,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다.

◆ 정년퇴직 교수



중어중문학과
김혜준

고려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2년간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재직하면서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주된 연구 분야는 화인화문 문학이며, 「화인화문문학(華人華文文學) 연구를 위한 시론」, 「시노폰 문학(Sinophone literature), 경계의 해체 또는 재획정」, 「캐나다화예작가협회(加華作協) 단편소설의 특징과 의의」, 「북미 화인화문소설에 나타난 화인의 초국적 세계 인식과 표현」 등을 비롯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현대 중문소설 작가 22인 (상), (하)』, 『근·현대중국사(하)-인민의 탄생과 굴기』와 『술꾼』, 『시노폰 담론, 중국 문학 - 현대성의 다양한 목소리』 등 다수의 문학작품과 학술 저서를 번역하여 국내 연구에 이바지하였다. 학술 저서로는 『홍콩문학론 - 홍콩 상상과 방식』 등이 있다.



불어불문학과
박형섭

박형섭 교수는 34여년에 이르는 본교 재직기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후학 양성 및 프랑스 회국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다. 재직 중 『아르도 와 잔혹연극론』 등의 도서를 간행하여 학자로서 부산대학교의 이름을 드높인 일은 주지의 사실이다. 연구자로서의 면모 이외에도 한국불어불문학을 대표하는 많은 학회들의 임원으로서도 활동을 하였다.



노어노문학과
최동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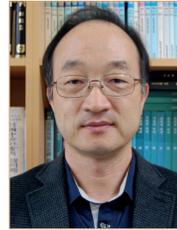
노어노문과 최동규 교수는 1998년 10월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2023년 퇴임하기 까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일할 인재로, 학계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인재로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양성하며 노문학 연구에 기여하였다. 또한 캠퍼스 공간관리위원회, 교양교육 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부산대학교 발전에 기여하였다. 러시아의 외교부와 교육부가 함께 설립한 기관 <러시아 세계>로부터 <부산대학교 러시아센터>를 유치하여 초대 센터장을 역임하였다. 한국슬라브어학회와 한국노어노문학회 편집위원, 법제처의 자문위원, 교육부발행 고등학교 교과서와 대전시 교육청 발행 중학교용 러시아 교과서의 심의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향후 명예교수로서 연구 활동 및 후학 양성에 매진할 예정이다.



한문학과
김성진

한문학과 김성진 교수는 1991년 3월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한문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학부 및 대학원생 등 후학을 양성하고 한문학 연구에 기여하였다. 인문대학 부학장, 학장, 부대신문사 주간 교수 등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부산경남권을 대표하는 <동양한문학회> 회장직을 역임하였을 뿐 아니라, 국내 우수한 학회활동을 통해 후학들에게 학문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였다. 대외적으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

면서 지역사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였다. 향후 명예교수로 연구 활동 및 후학 양성에 힘쓸 예정이다.



사학과
김기섭

사학과 김기섭 교수는 1994년 3월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후학 양성 및 한국어 연구에 기여하였다. 2012년 부산대학교 제19대 총장에 부임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그 밖에도 부경역사연구소 소장,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부산테크노파크이사사회 이사, 부산발전연구원 이사, 한국중세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향후 명예교수로서 연구 활동 및 후학 양성에 매진할 예정이다.

◆ 신입 교수



독어독문학과
박영미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석사와 박사과정을 거쳐 1997년 「비 논항이동 이론에 대하여: 주제화 변형 현상에 대한 보편 문법적인 분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졸업 이후에는 부산대학교 독어독문학과에서 강의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Kiez 독일어 문장 구조의 변칙성」, 「독일어 구어에서 나타나는 문법적 불일치 현상」, 「유럽의 다민족 청소년 언어 비교 연구」 등이 있다.



한문학과
권전원

부산대학교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거쳐 「이덕무 초기 산문의 공안파 수용양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BK21 계약교수, 점필재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주요 논저로는 『책에 미친 바보』, 『여주 소년한반도』, 『여주 조선신보』 등과 「이덕무의 명칭문학에 대한 관심의 추이 양상」, 「이덕무의 경릉파 인식과 수용」, 「『조선신보』 한문기사의 계몽적 역할과 의미」 등이 있다.

◆ 인문대 교수 연구년 및 장기과견

김려실	국어국문학과	1년	2022. 8. 1. ~ 2023. 7. 31.
노선숙	일어일문학과	1년	2023. 3. 1. ~ 2024. 2. 29.
정병언	영어영문학과	1년	2022. 9. 1. ~ 2023. 8. 31.
김유곤	영어영문학과	1년	2023. 3. 1. ~ 2024. 2. 29.
이용권	노어노문학과	1년	2023. 3. 1. ~ 2024. 2. 29.
이수훈	사학과	1년	2023. 3. 1. ~ 2024. 2. 29.
손영삼	철학과	1년	2023. 3. 1. ~ 2024. 2. 29.

◆ 2023학년도 1학기 학과장 명단

2023학년도 제1학기 학과 및 협동과정의 운영을 총괄하게 되는 학과장 및 협동과정 전공주임 교수는 다음과 같다.

국어국문학과장	허순우 교수 (2022. 2. 1.)
중어중문학과장	신우선 교수 (2022. 7. 1.)
일어일문학과장	김임숙 교수 (2023. 3. 1.)
영어영문학과장	박기성 교수 (2023. 1.15.)
불어불문학과장	이은령 교수 (2023. 3. 1.)
독어독문학과장	서은주 교수 (2022. 2. 1.)
노어노문학과장	양민종 교수 (2023. 3. 1.)
한문학과장	김남이 교수 (2023. 3. 1.)
언어정보학과장	강은지 교수 (2023. 3. 1.)
사학과장	강정원 교수 (2023. 2. 1.)
철학과장	조창오 교수 (2022. 3. 1.)
고고학과장	배진성 교수 (2023. 3. 1.)
인지과학 전공주임	권순복 교수 (2021. 3. 1.)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전공주임	박소영 교수 (2023. 3. 1.)

◆ 2022학년도 전기 박사학위 수여자 명단

- 오자키치에리(일어일문학과) [지도교수 : 조강희]
韓人大学生ワーキング・ホリデー・メーカーの日本語習得に関する研究 一口頭運用能力を中心に一
- 김영화(사학과) [지도교수 : 광차섭]
에블리아 켈레비의 『여행기』: 17세기 한 '오스만르'의 자전적 초상
- 손현미(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 권경근]
한국어 발음 평가 연구
- 김지현(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 전은주]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능력 평가 방안 연구

◆ 인문관 길도서관 리모델링

인문대학은 틈새학습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문관 층별 로비 학습 공간을 리모델링하였다. 인문관 2층, 3층, 4층의 모듈러 창을 따라서 라운딩 형태의 로비 공간에 조성된 공간으로 2012년경 처음 설치되었으며 학생들에게 휴식과 학습을 위한 틈새공간인 동시에 넉넉한 터, 정문, 웅비의 탑 등 학내와 학교 주변 경관을 모두 조망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는 '길도'(길도서관)라고 불리우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최근 Bar 테이블과 의자의 노후화로 인한 부식과 파손 등으로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도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리모델링을 통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새단장하였는데 2층은 2022년 2월에, 3층과 4층은 2023년 1월에 총 2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아울러 각 책상마다 전기 콘센트를 설치하여 코로나19로 증가된 비대면 강의 등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기능도 개선하였다.



◆ 국립대학육성사업

동아시아지식학 강좌 개최 및 『효원인문주간』 개최

동아시아지식학 구축 및 유라시아지식학 기반 확보를 위하여 문학, 언어, 역사, 철학, 융·복합 등을 망라하는 강좌를 총 68회 개최하였다. 그리고 3주(22.10.24.~11.11.) 동안 『효원인문주간』을 개최하여,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인문주간에는 '인문관-인문대학-인문학'을 주제로, 지식 꾸미기로 소비되는 인문학이 아닌 실천학문으로서 인문학을 수행하고자 고민하며, 새로운 인문학적 가치를 담고자 한 現 인문대학의 모습을 공유하였다. 특강을 통하여 인문관의 건축·예술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건축가 김종업의 인간 본질로의 회귀, 인문의 의미와 학문적 연계를 선보이며, 인문학 기반의 가치를 실천하는 1주기 국립대학육성사업의 환류를 함께 공유하고 확인 할 수 있었다.



<2022학년도 제5회 동아시아지식학 차세대 학술포럼 개최>

2022년 12월 23일, <제5회 동아시아지식학 차세대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총 15명의 차세대 신진연구자들이 '지식학 연구 소모임'의 성과를 발표하였고, 우수 발표자 7명에게 상금(총 330만원)을 지급하였다. 본 학술포럼을 통해 학문후속세대들의 동아시아지식학에 관한 다양한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었고, 자기연구 심화를 위한 발판 마련과 학제간의 융합 그리고 학술 교류의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022학년도 동아시아지식학 자율연구 장학지원 프로그램-결과 발표회 개최>

학부생, 대학원생의 연구와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총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자율연구 장학금을 지급하였다.(학과별 120만원) 장학생은 6개월간 동아시아지식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고, 12월 28일 개최된 결과 발표회에서 각자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주제를 통하여 교류할 수 있었다.



<2022학년도 동아시아지식학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행>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동아시아지식학 인문학 관련 주제, 코로나시대 이후 동아시아 사회 및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 등 학술적인 목적의 다양한 주제로 영상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총 7팀 선발하여 활동 지원금을 지원하였고, 각 팀은 영상제작 팀 프로젝트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였다. 영상물을 유튜브 채널명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및 인문대학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동문소식

◆ 고고학과 천선행 동문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임용



천선행(93학번) 동문은 부산대학교 고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일본 리츠메이칸대학(立命館大学)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주요 저서로는 『고고학자가 얘기하는 우리의 선사시대』(공저), 『時·空·形態 그리고 量』(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인간은 왜 전쟁을 하는가』, 『거대한 고분에 새겨진 고대인들의 죽음에 관한 관념』 등이 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학교 및 학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고학과 김재윤 동문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임용



김재윤(95학번) 동문은 부산대학교 고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고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러시아과학아카데미(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강의전담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주요 저서로는 『연해주 선사고고학 개론』, 『교과서 밖의 역사: 유라시아 초원 스키타이 문화의 미래와 여신상』, 『접경의 아이덴티티: 동해와 신석기문화』, 『북방고고학 개론』(공저), 『동북아시아 고고학 개설선, 원사편』(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러시아연해주와 극동의 선사시대』(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수상), 『러시아 연해주의 성(城)유적과 고대 교통로』 등이 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학교 및 학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고학과 김지현 동문 중국 산시대학 고고문학원(山西大学考古文博学院) 교수 임용



김지현(05학번) 동문은 부산대학교 고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고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중국 북경대학 고고문학원(北京大学考古文博学院)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한위진남북조 시기 청유갈채자기 시론」, 「古代 東亞細亞 出土 晉式帶金具의 成立과 展開」 등이 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학교 및 학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고학과 최인화 동문 2022학년도 대학원 학술상 수상



최인화(99학번) 동문은 부산대학교 고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고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동 대학원 고고학과에서 『디지털 고고학 활성화 방안 연구: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22학년도 대학원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경복궁 오백년 잠자는 조선을 깨우다』 등이 있으며 현재 국립안동문화재연구소 소장으로서 재직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재직 기관 및 학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고학과 유순미, 오원경 동문 2022년도 학예연구사 최종합격

유순미(08학번) 동문과 오원경(10학번) 동문이 울산광역시와 경기도 하남시 학예연구사(6급상당)에 각각 최종 합격을 하였다. 한국 고고학계를 선도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고고학과는 매년 2~3명의 학예연구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내고 있으며, 고고학·역사학 및 한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재직 기관 및 학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가을 학술 답사



11월 1일 가을 학술 답사를 실시하였다. 코로나 이후 처음 시행된 답사로, 경남 양산 일대를 탐방하며 통도사 및 요산 김정한 선생의 작품 배경이 된 명언 마을 등 문화·문학 유적지를 살펴보았다.

국어국문학과 학술제

12월 2일 국어국문학과 학과 학술제를 실시하였다. 학과 학부생의 자치 학술동아리인 '귀성문학회', '배달말연구회', '우듬지(고전문학연구회)', 그리고 잡지사 '가가가'가 2022년 한 해 동안 활동한 내용을 공유하고 논문과 잡지, 작품 등 성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미래와도전 발전장학금 출연 10주년



(주)미래와도전의 국어국문학과 발전기금장학 출연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식에는 (주)미래와도전 이병철 대표와 임직원을 초대하여, 감사패와 함께 2022년에 장학금을 수여한 학생들의 손편지를 전달하였다.

◆ 중어중문학과

2022학년도 중어중문학과 취업특강 개최



중어중문학과에서는 2022년 11월 4일(금) 박성희(15, 현대백화점면세점), 최정윤(16, 한국수력원자력) 졸업생을 초청하여 '현대백화점면세점 취업의 모든 것', '스터디를 활용하여 취업하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22학년도 진로설계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사업의 지원을 받아 중어중문학과에서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취업 준비에서 취업까지의 다양한 경험과 습득한 정보를 재학생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개최하였다.

◆ 일어일문학과

2022년 일어일문학과 학부생 답사



일어일문학과에서는 11월 11일에 포항으로 학부생 답사를 다녀왔다. 포항의 장기읍성과 일본 가옥거리 일대를 돌아보며 일어일문학 제반에 걸쳐 관계된 우리의 역사 및 일본과의 관계사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행사를 재개하여 학과 구성원들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학부생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2022학년도 일어일문학과 세미나



지난 12월 9일에 일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대학원생들의 인적 교류 및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경주 일대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고 재학생들의 연구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 진행 상황을 사전에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통해 일어일문학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질 높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동문장학금 수여식

영어영문학과는 지난 8월 26일 『2022년 영어영문학과 동문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매년 영어영문학과는 동문회 발전기금 출연으로 학부와 대학원 각 학년의 성적우수자를 선정하여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어영문학과 드라마 정기공연



영어영문학과 소속 학부 연극동아리인 드라마가 지난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4일간 레몬트리소극장에서 '블랙코미디'로 여름 정기공연을 개최했다. 영어영문학과 드라마는 40여 년의 전통을 가진 학부 연극동아리로서 기획, 연출, 무대장치 등 공연제반사항을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어영문학과 영문인의 밤 개최



영어영문학과는 11월 25일 재학생과 신입생 간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2022년 영문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영문인의 밤에서는 수강 신청 노하우, 동아리 활동 추천 등 선배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바탕으로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영문학과 취업지원 특강

영어영문학과는 대학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영어영문학과 취업특강』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졸업생 취업 특강은 6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으로 18차례 진행 되었으며 공무원, 교원임용고시, 사기업, 공기업, 로스쿨, 해외취업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 불어불문학과

기업탐방

2022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불어불문학과에서는 11월 25일 기업탐방(항만공사, 대선주조)을 다녀왔다.



초청강연회 : 툴루즈 대학교 기 라루 교수

10월 5일 툴루즈 대학교 기 라루 교수님의 초청강연회가 열렸다. 이 사업은 대학혁신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초청강연회 : 프랑스 삽화가 플랑튀



10월 21일 프랑스의 유명 삽화가 플랑튀의 초청강연회가 열렸다. 이 사업은 대학혁신사업 및 프랑스 대사관, 프랑스문화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2022 불문인의 밤 행사 개최



10월 28일 불어불문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모여 불문인의 밤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졸업생들의 취업특강도 함께 이루어져 재학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프랑스어 집중강좌 - 필립 달르레 교수님(창원대학교)

2023년 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창원대학교 필립 달르레 교수님을 모시고 프랑스어 집중 강좌를 열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이 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자소서 특강

2023년 1월 4일부터 18일까지 주 1회, 총 3회에 걸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자소서 특강을 진행하였다. 전문강사인 박영대 선생님과 함께 한 이번 특강을 통해 취업준비를 하는 불어불문학과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준 것으로 기대한다.

◆ 독어독문학과

<2022 독일 인문 산책 - 서정시 음악회> 개최



독어독문학과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전공특화형 비교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2 독일 인문 산책 - 서정시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2022 독일 인문 산책>은 독

일시학 특강과 클래식 공연이 한데 어우러지는 음악회로, 총 13명의 음악가들의 연주와 함께 <9월의 기적, 릴케>, <10월의 교유, 뢰를린>, <11월의 적요, 하이네>, <12월의 편린, 첼란>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2022 문화 브런치 - 부산의 미래를 창안하다> 개최



독어독문학과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진로설계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2 문화 브런치 - 부산의 미래를 창안하다>를 개최하였다. <2022 문화 브런치>는 지역사회의 문화 진흥을 주도하고 있는 「금정문화재단 지역문화팀», 「부산관광공사 관광콘텐츠팀», 「영화의전당 영화창의도시팀」 등 총 3곳을 방문하여, 해당 부서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채로운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2022 독어독문학과 크리스마스 파티> 개최



독어독문학과는 2022년 12월 21일 학과 소속 재학생 및 교수진이 한데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2 크리스마스 파티> 행사를 개최하였다. 독일의 크리스마스 문화와 관련된 역사 소개와 문화 퀴즈, 선물 교환, 전통 게임 등 학과 구성원 간 친목을 다지고 소속 구성원이 함께 한 해를 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였다.

◆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학과 학술 세미나 및 등반



10월 6일 학과 학술 세미나 및 등반을 시행하였다. 학과 소속 교수, 강사, 학부·대학원생 등 60 여명이 참여하여 친교와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이 이루어진 시간이었다.

전공특화·진로설계 비교과 프로그램 추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학기에 전공특화 비교과프로그램 4개, 진로설계 비교과프로그램 3개를 추진하여 총 221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진로설계 비교과프로그램은 학과 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도·기획 및 추진하여 참여 학생들을 많이 고무시켰다.



◆ 한문학과

2022 한문학과 추계학술답사



11월 10일~11월 12일(2박 3일)에 “유배, 은거, 풍류, 역사의 고장 호남”이라는 제목으로 추계학술답사를 다녀왔다. 다산 정약용, 고산 윤선도, 동리 신재효 등의 유적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문화유산의 현장을 체험하고, 저녁에는 선배와 후배, 교수님들과 함께 학교 생활 진로 교우 관계 등 수업 시간에 다하지 못했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문학과 식구들이 모여서 단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2022학년도 2학기 석사 학위청구논문 발표회

석사 학위청구논문 1차 심사인 예비발표회를 2022.12.1.(목)에 20명 내외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인문대교수연구동 209호에서 진행하였다. 발표자는 석사 2명(김영준, 강주형)으로, 발표주제는 「조선시대 箕子談論과 社會改革論 관련 양상」, 「유몽인의 자기인식과 그 실현과정에 대한 연구」였으며, 대학원생들과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 속에서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 언어정보학과

[특성화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특강 개최



언어정보학과에서는 “언어 생태 회복을 위한 지역 언어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박민욱 (주)유시스 개발 이사를 초청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특강을 기획, 심화/응용과정까지 총 10회 이상의 특강을 진행하였다.

[특성화사업] 대학(원)생 지역 언어 연구 공모전 개최



언어정보학과에서는 “언어 생태 회복을 위한 지역 언어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원(생) 지역 언어 연구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9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1등 1명, 1,000천원, 2등 3명 각 500천원, 3등 5명 각 100천원)을 지급하였다.

◆ 사학과

사학과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회 개최

9월 30일 인문관 501호에서 사학과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발표자는 석사수료생 4명(두하은, 허경아, 권진근, 손미은)이었다. 발표 논문의 주제는 「명대 무슬림 사회의 발전과 경당교육의 등장」, 「고려 후기 『朱子家禮』의 도입과 상장례 변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수산시험장 설

치류와 조선 수산업의 재편」, 「한말~일제강점기 경주공립보통학교의 설립과 운영」으로 한국사와 동양사 분야의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되어, 대학원 재학생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2022년 사학과 추계정기학술답사 실시



10월 28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처음으로 추계정기학술답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추계정기학술답사에서는 경상북도 경주시의 분황사지, 황룡사지, 선덕여왕릉, 원성왕릉 등의 유적지를 방문하였으며, 전임교수 6명, 대학원생 8명, 학부생 63명이 참여하였다.

학술강좌 개최 :

1946년 부산-경남 지역 콜레라 만연과 종전/해방 직후 역사·사회

11월 10일 국립대학육성사업 동아시아지식학 학술강좌의 일환으로 전남대학교 사학과 임종명 교수를 초빙하였다. 강좌에서는 1946년의 전국적 콜레라 유행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특히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전염병 유행의 사회적·역사적 의미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유의미한 강연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제5회 피란수도 부산 논문공모전 입상

부산시는 미래 세대 전문연구자를 양성하고, ‘피란수도 부산’의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5회 피란수도 부산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에서 부산대학교 사학과 3학년 한우림 학생은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3학년 하지선 학생과 함께 ‘피란수도 부산의 공공역사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입상(대상, 부산시장상)하였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공모전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피란수도 부산이라는 역사를 대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점에서 논문심사위원들로부터 신선함과 학술·문화적 활용 등을 잘 고민한 새로운 영역의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5회 한·중 국제인문학술심포지엄 개최



12월 9일 부산대학교 인문대학과 교류 협정을 체결한 중국 정주대학 역사학원과 부산대학교 사학과가 다섯 번째 국제인문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먼저 「河洛문화와 客家집단」, 「중국 중세 農書상의 귀족문화」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동중서의 정치 사상, 「四時纂要」 판본 비교, 조선 儒子의 經年 담론, 훈춘 만주족의 사례를 통해 본 중국 少數民族의 탄생, 조선 초기 편찬된 「新編集成馬醫方」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들이 뒤를 이었고, 양국 연구자들 간의 활발한 종합토론을 끝으로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2023년 사학과 대학원생 학술교류회 개최

1월 13일 제2공학관(자료관) 2104호 강의실에서 2023년 사학과 대학원생 학술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교류회에서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5~6세기 신라 경주 적석목곽묘에서 출토된 로만글라스의 유입 경로」, 「원나라의 吏制」, 「19세기 말 미국을 바라본 한 봉수

주의자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 처음으로 한·동·서 대학원생들이 함께 모여 서로 간의 연구주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던만큼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철학과

2022 철학과 자율학술답사 및 학술답사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철학과에서는 PNU Major+사업으로 “경주 지역의 역사성과 현대성 고찰을 위한 자율 답사(9.2.(금)~9.3.(토))” 및 “학술답사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답사는 조별 주제에 맞는 경주 역사 유적지나 문화 공간 등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한 뒤, 조별 학술답사 포트폴리오를 경진대회에 제출하여 “역사성과 현대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전공 학술 역량을 강화하였다. “주체적인 경주의 역사성 체험 및 타자화로부터의 탈피”로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1조 외 3개 조에 대한 장학금 전달 및 시상식이 이뤄졌다.

2022 효원 논리 대제전 사업



10월 31일(금)부터 11월 4일(금)까지 진행된 “2022 효원 논리 대제전”은 학습형 프로그램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오프닝특강(김명석 강사), PSAT 특강(고병석 강사) 등에서 많은 타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철학과 학생 뿐 아니라, 부산대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제적인 취업 정보가 공유되었다.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부산대 구성원의 5분 자유 발언대 및 질의응답으로 운영된 “효원비판대”에서는 건전한 토론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의미있게 효원논리대제전을 마무리하였다.

2022년도 대동철학회 가을학술대회 개최



10월 29일(토) SAM분야 학술행사에서 “인간에 관한 철학적 상상, 사유 그리고 논쟁”이라는 주제로 “2022년도 대동철학회 가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학술대회에서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다양하고 융복합적인 철학 담론이 이뤄졌고, 특히 대학원생을 위한 ‘학문후속세대 분과’ 발표는 부산대를 비롯한 영남 지역 대학의 학문 후속세대에게 학문 연구자로서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자리였다.

2022년 고교학점제 교양교과목 수업콘텐츠 개발 및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직무 연수

철학과에서는 부산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용역사업인 “고등학교 교양교과(철학, 환경) 콘텐츠 개발 및 연수 사업”을 수주하여, 9월부터 12월 간 교양교과(철학, 환경) 콘텐츠 개발을 완료하였고, 2023년 1월 4일(수)~6일(금)간 중등 교사 대상으로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직무 연수를 인문관에서 개최하여, 참여 교사들의 『철학』, 『환경』 교과목에 대한 이해와 학생참여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 도움을 주었다.

“대중철학 플랫폼 창업” 학부생·대학원생 동아리 모임 활동

2022년 산학협력 교육기반 조성 사업으로 “대중철학 플랫폼 창업”에 철학과 학부생, 대학원생들이 적극 참여하여, 학기 중 부산 내 인문학 기획자 초청 특강과 방학 중 1월 9일(월)~1월 10일(화)의 광주인문학교육연구소와 대구시민인문학 센터 방문을 통하여 선행사례로서 플랫폼 운영 방법 전수 및 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 고고학과

저명학자 초청 단기 집중 특강 개최

고고학과에서는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우수한 국내외 저명학자를 모시고 저명학자 초청 단기 집중 특강을 개최하였다. 11월 2일에는 Jennifer Bates(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Why do archaeobotany?> 특강을, 11월 16일에는 위정(북경대학 고고문박학원)교수를 초청하여 <위진남북조의 묘제> 특강을, 11월 23일에는 정인성(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신공황후 삼한정벌설과 조선고적조사> 특강을 각각 진행하였다.

2022학년도 고고학과 추계 전라권 정기학술답사 실시



고고학과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2학년도 고고학과 추계 전라권 정기학술답사를 9월 27일~29일 2박 3일간 진행하였다. 학부생 66명, 교원 5명, 조교 1명, 대학원생 5명 등 총 77명이 참가한 이번 답사에서는 익산 왕궁리유적,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표산고분군 발굴현장, 남원 유곡리 고분군 발굴현장 등을 답사하며, 유적·유구·유물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답사를 통해 전공 역량 강화는 물론, 학우 간, 사제 간 유대감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22학년도 고고학과 취업·진로 특강 실시

고고학과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2학년도 고고학과 취업·진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고고학과 졸업 이후 진출할 수 있는 대표적 진로인 <국립박물관(고고학/비고고학)>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문화재 유관기관(협회)>, <문화재 관련 스타트업(창업)>, <지방자치단체 학예연구사>를 중심으로 총 6회에 걸친 특강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직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일회성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강 이후 멘토링(간담회)으로 연계하여 보다 생생하고 넓은 분야의 취업 정보를 획득, 취업에 대한 의지와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동계방학기간 중 현장실습



고고학과에서는 동계방학기간 중 여러 학생들이 발굴현장 및 연구원 등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였다. 이번 동계방학기간에는 (재)가야문물연구원의 대구 구수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지구 내 유적 발굴조사현장에서 2명, (재)삼한문화재연구원의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현장

학과·연구소 소식

에서 1명,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의 구미 괴평송림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현장에서 1명, 한국문화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에서 경주 권역 소규모 발굴조사현장에서 3명 등 고고학과 학부생 7명이 실습을 진행하여 현장 실무경험을 쌓았다.

고고학과 4단계 BK21 사업팀 '2022 겨울 고고학 학교' 전문가 초청 특별 강연회 개최

지난 2020년 2학기부터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에 선정되어 미래 고고학을 선도할 통섭형 고고학자를 양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SAP 융합 인재 양성 사업팀(팀장 이창희 교수)」에서는 학기 중과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교육연구팀 기획·운영프로그램, 대학원생 주도 프로젝트, 대중고고학 실천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 기간을 맞이하여 '동아시아와 함께 하SAP' '과학과 함께 하SAP', '대중과 함께 하 SAP'의 테마 아래 국내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3회의 특강을 진행하였다.

고고학과 4단계 BK21 사업팀 '사람과 사물의 상호작용' 공동학술대회 개최



「동아시아 SAP 융합 인재 양성 사업팀」에서는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와 BK21 교육연구팀인 인류세 기술·지식·물질 네트워크와 문화 큐레이팅 전문가 양성 교육연구팀(팀장 이성주 교수)과 공동으로 '사람과 사물의 상호작용' 공동학술대회를 2023년 1월 7일 경북대학교 인문학국진흥관에서 개최하였다.

석사과정 및 졸업생이 중심으로 진행된 본 학술대회를 통해 모역지석묘, 낙랑고분 출토 칠이배, 삼한시대 대구·경산지역의 철제 무기, 익산 미륵사지 출토 당초문암막새 등 다양한 주제 발표를 통한 학술 교류의 장이 펼쳐졌으며, 이를 통해 국내 연구교류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고학과 4단계 BK21 사업팀 '학문후속세대가 여는 미래로 통하는 과거의 문' 국제학술대회 개최



「동아시아 SAP 융합 인재 양성 사업팀」에서는 목포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일본 시마네대학(島根大学) 고고학연구실과 함께 '학문후속세대가 여는 미래로 통하는 과거의 문' 국제학술대회를 2023년 1월 30일 부산대학교 인문관 시습관(501호)에서 개최하였다.

국내·외 동아시아비교고고학(유라시아고고학)을 연구하는 학문후속세대(석·박사 대학원생)를 중심으로 진행된 본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교류의 장이 펼쳐졌으며, 이를 통해 국제 연구교류 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고학과 구속현 박사과정(수료 후 연구생) BK21 우수논문상 수상

「동아시아 SAP 융합 인재 양성 사업팀」 소속 참여대학원생으로 재학하고 있는 구속현 박사과정(수료 후 연구생)이 2022학년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BK21 우수논문상(대학원장상)을 수상하였다.

BK21 우수논문상은 BK21 FOUR 교육연구단(팀) 참여 대학원생의 우수한 연구 성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구 및 논문 발표에 대한 의욕 고취와 향후

학문후속세대로의 연계로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상식은 2023년 1월 27일 BK21 GRAND-PNU Day에서 진행되었다.

◆ 인문학연구소

K-인문학 특강 개최

인문학연구소는 K-인문학 특강을 기획하여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다양한 인문고전과 사회문화현상을 주제로 세계와 지역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강좌를 운영했다.

만남 속에 있음·함석헌과 존재의 문제	김상봉 (전남대)	2022. 10. 6. 16:30~18:00
영제국 위생개혁과 감염병 관리의 정치학: 콜레라와 말라리아를 중심으로	염운옥 (경희대)	2022. 11. 4. 16:30~18:00
바이킹과 영국신사-중세 유럽의 이주사	양정무 (한예중)	2022. 12. 2. 16:30~18:00
공존과 선용 사이에서: 인간 아닌 존재들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심지원 (동국대)	2023. 1. 5. 16:30~18:00

연속기획특강 56강, 57강 개최

인문학연구소는 K-인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였다.

56강	'파독광부'에서 이주자로:구술사로 본 독일 한인 광부의 세계사	이유재 (독일 튀빙엔대)	10. 21. 15:00
57강	1960-70년대 터키인의 독일 이주와 문화 정체성	나혜심 (고려대)	11. 11. 15:00

2022년 국내학술발표대회 개최

인문학연구소는 '디아스포라와 이동하는 주체, 그리고 탈/기억의 정치학'이라는 주제로 12월 15일, 인문대교수연구동 209호에서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22년 인문학연구소와 한국상호문화철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인문학연구소는 한국상호문화철학회와 공동주관으로 12월 19일 인문대교수연구동 209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는 '문화와 문화의 철학적 만남'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만남의 장면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의 현재를 재구성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디아스포라 관련 도서 독후감대회 개최



인문학연구소에서는 <국립대육성사업_PNU STARTUP-10>의 일환으로 '디아스포라 관련 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시행하였으며, 심사를 통하여 5명을 선정, 상금을 시상하였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디아스포라'가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나 고유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맥락'이자 '위치'를 가리킨다는 관점에서, 디아스포라와 디아스포라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 간의 공감의 지점을 마련하고, 이 공감을 토대로 새로운 연대를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인문학 강좌 개최

‘희망의 인문학’ 강좌는 인문학연구소가 NGO단체인 동구쪽방상담소와 함께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온 것이다. 노숙인 및 쪽방거주민 등 소외계층의 주체적 삶을 건립하기 위해 사고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COVID-19” 상황 이후 인문학적 고민과 실생활에서의 적용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해 보는 강의를 실현하였다. 이러한 강의는 실제 인문학이 인간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점필재연구소

<2022년 점필재인문고전 아카데미> 행사 개최

문화와 인물로 찾아보는 밀양의 산천 (1강~12강)	2022.09.29. ~2022.12.01.	밀양향교 유림회관
------------------------------	-----------------------------	--------------

제3회, 4회 한국계몽주의특강

제3회 한국 계몽주의 특강 <한문에서의 탈각과 지식인의 글쓰기> (한영균)	2022.08.11.	인덕관 사회시설
제4회 한국 계몽주의 특강 <한말 계몽운동과 신문> (최기영)	2022.11.18.	인문대 교수연구동 212호



◆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국제학술대회] 20세기 한중관계사와 동아시아 연대



- 일자 | 2022.09.16
- 장소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세미나실 및 온라인

본 국제학술회의는 20세기 제국주의 침략과 이에 대응한 식민지 민족들 사이의 연대를 다루었다. 특히 항일운동의 주체들이 관계맺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관련한 연구가 관심을 끌었는데, 배경한 교수의 파리강화회의 당시 신규식의 중국내 청원운동과 한중연대 연구는 항일운동의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았다. 참가 연구자는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국적이며, 총 6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인문도시지원사업] 2022년 제17회 인문주간

- 일자 | 2022.10.24.~10.30
- 장소 | 북구 일대

‘포스트 팬데믹 시대, 미래를 여는 인문학’ 주제로 제17회 인문주간 행사를 개최하였다. 해당 행사는 답사 <대천천 줄기>, 인문강연 <과거의 나로부터 떠난다는 것>, 상영회 <एको 북구>, 사진전시 <북구 아:음>, 학술회의 <생태 인문학 그리고 국가와 지역>을 기획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인문학 강좌] 자연아 놀자1

- 일자 | 2022.11.04.~12.02
 - 장소 | 대천천환경문화센터 외 북구 일대
- 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강좌로 인간과 생태의 공존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자연 속에서 함께 하는 야외 생태학습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생활의 활력을 느끼고 생명과 돌봄의 가치를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인문학 강좌] 문화와 생태1

- 일자 | 2022.11.08.~2022.11.29
 - 장소 | 북구평생학습관
-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낙동강, 금정산 등 북구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태자원을 소재로한 문화자산을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는 주제로 인문강좌를 진행하였다.

[인문학 강좌] 낙동강과 문학

- 일자 | 2022.11.05.~2022.11.26
 - 장소 | 화명도서관 지하 1층 교양강좌실
- 북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낙동강을 주제로한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북구의 장소성을 되새길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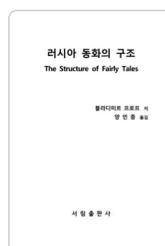
[인문학 강좌] 영화로 생각 키우기

- 일자 | 2023.01.12.~03.02
 - 장소 | 부산뇌병변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
- 뇌병변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세계 명작을 애니메이션화 한 작품을 감상하고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좌를 계획하였다.

[인문학 강좌] 문화와 생태2

- 일자 | 2023.02.02.~2023.02.23
 - 장소 | 화명도서관 지하 1층 교양강좌실
-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문학을 통해 자연환경, 생태자산을 고찰하고 인문학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신간소개



러시아 동화의 구조

블라디미르 프로프 / 양민중(옮긴이) / 서림출판사 / 2022

이 책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 연구비 지원으로 번역되었다. 1928년에 간행된 구조주의의 고전이며 민담연구의 교과서로 불리는 프로프의 텍스트가 원본이다. 원제는 영어로 표현하면 the Structure of Fairy Tales이다. 이 책은 민담의 구조분석을 위한 수학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1958년 영어로 번역되면서 서구 구조주의에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도 평가되고, 러시아 구조주의의 초기 형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중양아시아 서사시 마나스 연구

심효운, 아셀 이사예바, 양민종, 최원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2022

이 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연구비지원으로 연구되었다. 중앙아시아 대표 영웅서사시인 마나스에 대해 국문과와 노문과 교수 등 4명의 전문가들이 쓴 글을 엮었다. 중앙아시아 현지 전문가의 논문도 함께 수록했다. 영웅서사시의 서사구조에서 영웅서사시의 현대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서사시를 조망하였다.



香港文學論: 香港想像與方式

김혜준 / 台北: 國立台灣師範大學出版中心 / 2022

홍콩문학의 발전은 전통과 현대, 선주민과 이주민, 농촌 배경과 도시 발전, 동양과 서양, 식민과 피식민 및 포스트식민, 정치적 부자유와 표현의 자유, 냉전 체제 및 '1국 2체제' 하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등의 온갖 요소들이 복잡하게 뒤섞이고 삼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따라서 홍콩문학 역시 그만큼 특별하고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홍콩작가가 홍콩문학을 통해 어떻게 홍콩과 홍콩인을 상상했는지에 대해 탐구하고 있으며, 그 속에는 한국인 학자로서 저자 자신의 홍콩과 홍콩인에 대한 - 다소는 객관적이지 다소는 주관적인 - 상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우선 홍콩문학의 독자성, 범주, 특징에서부터 홍콩문학이 형성한 또는 형성해가고 전통과 변화를 서술한다. 다음으로 홍콩 중단편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 및 외국인 여성 가사노동자인 '페이옹(菲傭)'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으로 홍콩작가인 류이창(劉以鬯), 시시(西西), 예쓰(也斯)의 대표작을 대상으로 그들이 작품에서 홍콩과 홍콩인을 어떻게 상상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루쉰 문학세계의 꿈속에서 노닐며 | 중국 루쉰 연구 명가정선집 4

장명양(지은이) / 권도경, 이옥연(옮긴이) / 소명출판 / 2021

중국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루쉰(魯迅)은 국내외에서 오랜 기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왔으며, <중국 루쉰 연구 명가정선집(총 10권)>은 중국의 대표적인 루쉰 연구자들을 국내에 소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명가정선집 시리즈 중 한 권인 이 책은 루쉰 연구가 장명양(張夢陽)의 연구 모음을 번역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장명양의 연구 성과 뿐만 아니라 당시 루쉰 연구의 경향과 시대적 배경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점필재 김중직의 도학 다시보기』

정출현 외 7명(지은이) / 문사철 / 2022

김중직의 도학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엮은 책이다. 실린 논문들은 기존의 왜곡된 기록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새로 발굴된 자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김중직의 시에서 본 도학 사상, 조선사회에 도학을 전파하는 과정, 실천실용 지향의 학문노선, 김중직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실상, 인조반정(仁祖反正)이 김중직에게 끼친 영향, 「조의제문」의 창작 시점에 대한 오해 등에 대해 논함으로써 김중직의 도학사상을 광범위하게 조명하였다.



『새로 풀어쓴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

김승룡, 채한 / 미다스북스 / 2022

한문학과 김승룡 교수와 한의학과 채한 교수가 5년간의 긴 공동작업을 거쳐 『새로 풀어쓴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을 출간했다.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1894)은 구한 말 의학자인 이제마(1837~1900)가 저술한 의서로, 사상의학에 관한 이론과 치료법을 수록했다. 지금까지 다수의 번역과 연구가 진행됐지만 임상의학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에 비해 철학적 세계관이나 기초의학 분야에서는 단순 직역에 그쳐, 한의사, 특히 기초학 전공자들에게도 어려움이 많았다. 주석과 해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할 수 없고, 뜬금없어 보이지만 하는 내용이 혼란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동의수세보원'은 부산대 한의학자와 한문학자인 저자들의 손에서 새롭게 번역·해설됐고, 그 결과물로 '새로 풀어쓴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이 빛을 보게 됐다.



『교류 - 중국 지식인의 열 가지 눈』

김승룡, 쑨허윈(역은이) / 쑨핑, 김아현(옮긴이) / 미다스북스 / 2022

2021년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가 '중국지식인, 교류(交流)'를 말하다란 주제로 특별강좌를 기획하고 개최, 특별강좌에 참여한 교수 열 명의 강의를 책으로 엮어내었다. 각기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공을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소개한다. 또한 중국 근현대 정치·사회·문화·인물·작품을 총망라한 종합적인 교류의 장을 보여주며,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이 걸어온 교류의 과정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류의 방향을 제시한다.



정신현상학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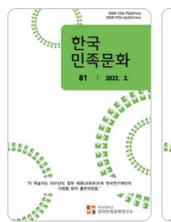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 김준수(옮긴이) / 아카넷 / 2022

『정신현상학』은 청년기 헤겔의 주저일 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켜온 최대의 문제작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사적 관점에서도 전통 형이상학은 물론 근대 철학이 여전히 고수하던 실제 철학에서 탈피하여 주체의 철학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룬 획기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옮긴이 김준수 교수(부산대)는 시대가 요청하는 『정신현상학』의 원본성을 충실히 구현하여 헤겔 연구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펠릭스 마이너판(1980)을 저본으로 삼아 기존 번역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시도했다.



소산집 3

김홍영, 남춘우, 정석태 역 / 도서출판 점필재 / 2022



[학술지] 로컬리티 인문학 28

온라인 학술지 발행 / 2022



[학술지] 한국민족문화 82, 83

온라인 학술지 발행 / 2022